



가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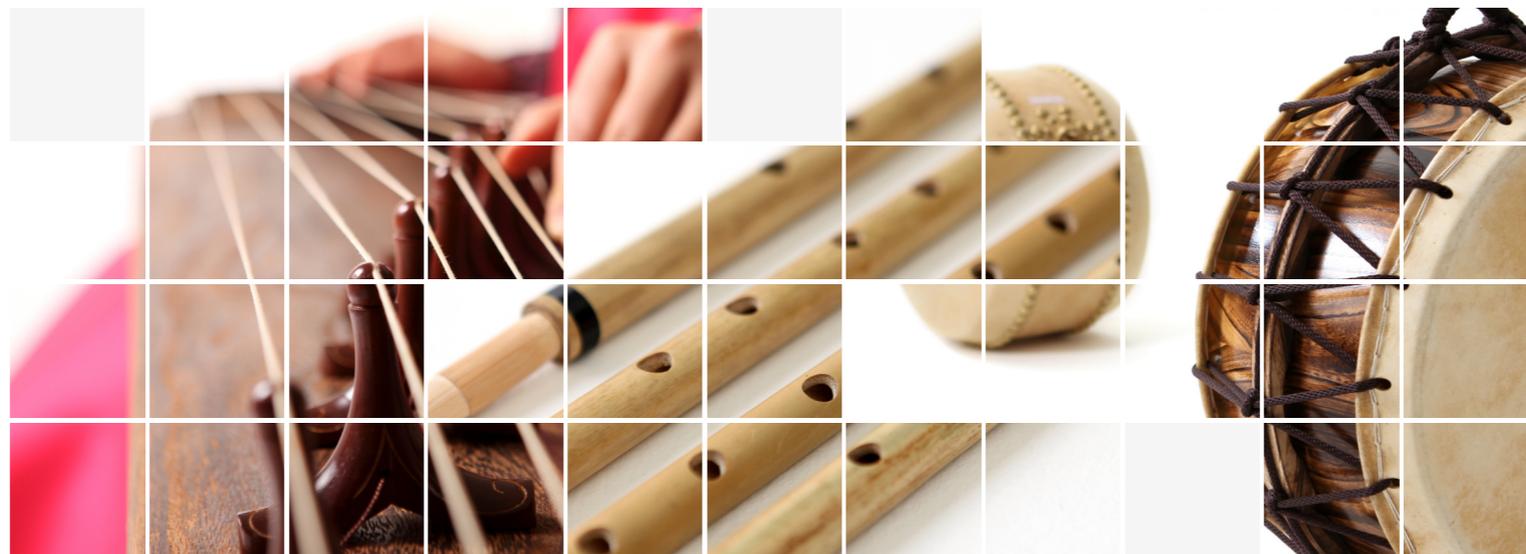
가야금 소리 '청흥동당', 가슴 속에 스며든다

## GAYAGEUM

'Cheong-Heung-Dung-Dang',  
the sound of gayageum is instilled into heart.



# 한국의 전통악기



한국의 전통악기는 (1) 음악에 따른 분류 (2)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3)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로 구분한다. (1) **음악에 따른 분류 방법**은 중국에서 1114년(고려 예종 9년)에 수입된 대성아악에 쓰이는 아악기, 중국과 서역에서 제작되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 악기를 가리키는 당악기,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고유의 향악기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법이다. (2)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은 자연에서 얻은 여덟 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3)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로 분류하는 방법**은 악기를 연주할 때 나타나는 특징에 따른 것이다.

음악에 따른 분류 방법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

# 한국의 전통악기



1493년(조선 성종 24년)에 편찬한 『악학궤범(樂學軌範)』 권6의 <아부 악기 도설>과 <당부 악기 도설>, 권7의 <향부 악기 도설>에 소개된 국악기 분류 방법이다. 크게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나뉘고, 현재 연주되지 않는 악기도 포함돼 있다.

## 향악기(鄕樂器) 향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가야금(伽倻琴), 거문고(玄琴), 향비파(鄕琵琶), 향피리(鄕簫), 대금(大笏), 중금(中笏), 소금(小笏), 소관자(小管子), 초적(草笛)

## 아악기(雅樂器) 아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편종(編鐘), 편경(編磬), 특종(特鐘), 특경(特磬), 건고(建鼓), 삭고(朔鼓), 응고(應鼓), 뇌고(雷鼓), 영고(靈鼓), 노고(路鼓), 뇌도(雷鼗), 영도(靈鼗), 노도(路鼗), 도(鼗), 절고(節鼓), 진고(晉鼓), 축(祝), 어(敵), 관(管), 약(籥), 화(和), 생(笙), 우(竽), 소(簫), 부(缶), 적(箎), 훈(埴), 지(篋), 슬(瑟), 금(琴), 순(鎗), 탁(鐸), 요(鐔), 탁(鐃), 응(應), 아(雅), 상(相), 독(牘)

## 당악기(唐樂器) 당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

박(拍), 방향(方響), 월금(月琴), 교방고(敎坊鼓), 장구(杖鼓), 당비파(唐琵琶), 해금(奚琴), 대쟁(大箏), 아쟁(牙箏), 당피리(唐簫), 당적(唐笛), 통소(洞簫), 태평소(太平簫)

# 한국의 전통악기



중국 고대 음악 관련 문헌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말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악고(樂考)」에 소개된 국악기 분류 방법이다. 악기의 재료에 따라 크게 팔음(八音)으로 분류한 뒤, 아악에 해당하는 <아부(雅部)>와 속악에 해당하는 <속부(俗部)>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연주되지 않는 악기도 있다.

## 금부(金部)악기 쇠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특종, 편종, 순, 요, 탁(鐸), 탁(鐃)

속부: 향발, 방향, 동발(銅鈸)

## 석부(石部)악기 돌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경(磬)

## 사부(絲部)악기 줄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금, 슬

속부: 거문고, 가야금, 해금, 당비파, 향비파, 월금, 대쟁, 아쟁, 알쟁(篋箏)

## 죽부(竹部)악기 대나무가 주재료인 악기

음악에 따른 분류 방법

악기 재료에 따른 분류 방법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

# 한국의 전통악기



아부: 소(簫), 약(簫), 관(管), 적(篋), 지(篋)

속부: 대금, 중금, 소금, 통소, 당적, 당피리, 태평소

**포부(匏部)악기** 바가지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생(笙), 우(竽), 화(和)

**토부(土部)악기** 흙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훈, 상, 부, 토고(土鼓)

**혁부(革部)악기** 가죽이 주재료인 악기

아부: 건고, 삭고, 응고, 뇌고, 영고, 진고, 노고, 뇌도, 영도, 노도

속부: 대고, 소고, 절고, 교방고, 장구

**목부(木部)악기** 나무가 주재료인 악기

아부: 부, 축, 어, 응, 아, 독

# 한국의 전통악기



1914년 호른보스텔(E.M. von Hornbostel, 1877~1935)과 쿠르트 작스(Curt Sachs)의 저서『악기분류법시도』에도 소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분류로 크게 나눈 다음, 관악기를 북 종류와 그 밖의 악기로 나누는 방법이다.

**현악기(絃樂器)** 줄을 뜯거나 튕기고, 도구를 이용해서 소리 내는 악기

가야금, 거문고, 해금, 양금, 아쟁 등

**관악기(管樂器)** 호흡을 이용해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내는 악기

대금, 피리, 단소, 태평소, 통소, 훈 등

**타악기(打樂器)** 채와 손을 이용해 두드리고 쳐서 소리 내는 악기

편종, 편경, 장구, 북, 좌고, 팽과리 등



- 一  
알  
아  
보  
기
- 二  
살  
펴  
보  
기
- 三  
체  
험  
하  
기



# —

알아보기

가야금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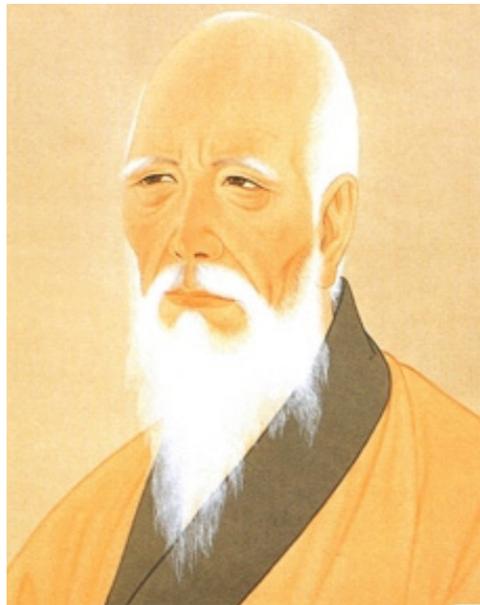
기록과 유물 속의 가야금

가야금 재료

가야금 제작 과정



# 가야금의 탄생



우륵

## ‘진흥왕’과 ‘우륵’의 이야기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지던 시기, 한민족은 주변 여러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접한 새로운 악기를 받아들여 우리 실정에 맞춰 적극 활용했다. 특히 중국에서 건너온 악기는 삼국시대 점진적인 개량 사업을 통해 우리 음악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악기 개량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가야금’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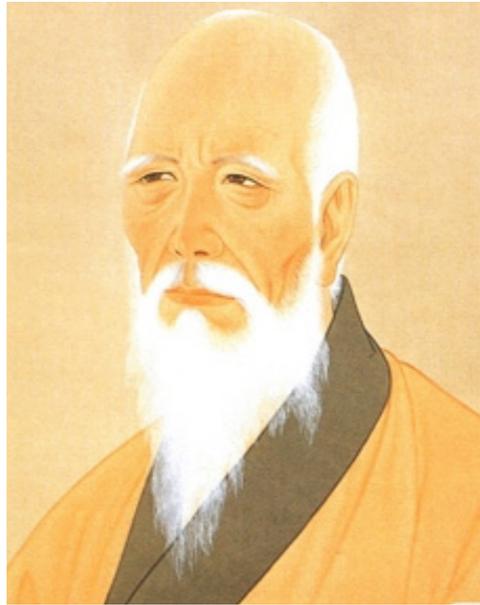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2 「악지(樂志)」에는 가야금이 중국 악부의 쟁을 모방해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으며, 『신라고기(新羅古記)』에는 가실왕이 중국 당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고 나온다.

신라로 망명한 우륵을 맞이한 진흥왕은 그를 국원에 머물게 하고, 신라 사람 계고와 법지, 만덕을 보내 음악을 배우게 했다. 계고는 가야금을 배웠고, 법지는 노래를, 만덕은 춤을 익혔다. 우륵의 제자가 된 세 사람은 12곡의 가야금 연주곡을 전수받고 나서 “번잡하고 음란하여, 우아하고 바른 음악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며 12곡을 5곡으로 줄여 연주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륵은 처음에는 제자들의 연주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들의 음악을 직접 듣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면서 “즐겁지만 무절제하지 않고 슬프면서 비통하지 않으니, 바르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감탄하기에 이른다.

한편 진흥왕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크게 기뻐했는데, 한 신하가 아뢰기를 “가야라는 나라를



# 가야금의 탄생



우륵

망치게 한 음악이라 취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했다. 진흥왕은 신하의 말에 “가야의 왕이 음란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이지, 음악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성인이 음악을 제정하는 것은 인정에 따른 법도에 의한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어지러운 것은 음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응대했고, 결국 우륵의 가야금 음악을 신라의 대악으로 삼았다.

물론 당시 신라 땅에도 고유의 현악기인 신라금이 있었다. 그러나 현의 수가 적고 음역이 좁아 표현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가야국에서 제작한 가야금이야말로 12현의 확대된 음역으로 풍부한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었으므로 진흥왕은 이 점을 적극 받아들여 신라 음악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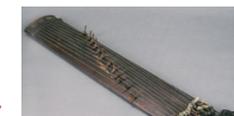
# 기록과 유물 속의 가야금



토우 장식 항아리(土偶裝飾長頸壺)

4~5세기 추정 | 국보 제195호 |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 높이 34cm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30호분에서 발견됐다. 항아리 목 부분에 신비한 동물들과 현악기를 타는 토우가 장식돼 있는데, 현악기 끝 부분이 오늘날 정악가야금에서 볼 수 있는 양이두의 형태와 비슷하다. 현이 여섯 줄인 것으로 보아 신라금인 듯하다.





# 기록과 유물 속의 가야금



## 양이두(羊耳頭)

6~7세기 추정 |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 잔존 길이 9cm, 너비 28cm

대전광역시 월평동에서 발견됐다. 양의 귀를 닮았다고 ‘양이두(羊耳頭)’로 불린다. 맨 끝 부분에는 구멍이 여덟 개 뚫려 있으며, 악기의 몸통이 있던 부분을 향해서 나무가 닳은 자국이 있다. 여기에 줄을 연결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기록과 유물 속의 가야금



## 신라금(新羅琴)

시라기고도(일본에 전한 가야금의 일본명) | 일본 정창원 소장

『악학궤범(樂學軌範)』 권7에 전해지는 가야금 그림처럼 일본에 전해진 신라금에서도 양이두가 발견된다. 악기 몸통은 오동나무의 통을 파서 제작되었고, 안쪽 위에 12줄을 엮은 형태이다. 현재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황실 박물관 '정창원'에 세 대의 신라금이 보관되어 있다. 이 중 두 대의 신라금에 끈이 달려 있는데, 연주자가 목이나 어깨에 메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휴대하거나 보행하기에 편하도록 매달아 놓았는지 그 용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기록과 유물 속의 가야금



## 청금상련(聽琴賞蓮)

신윤복 | 조선 18세기 | 간송미술관 소장 | 세로 28.2cm, 가로 35.3cm

조선 후기 신윤복(申潤福, 1758~?)의 풍속화다.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과 함께 정악 가야금을 연주하는 기생의 모습이 보인다. 청금상련은 가야금을 들으면서 연꽃을 감상한다는 뜻으로, 악사나 기녀를 불러 후원에서 음악과 노래, 시를 즐겼던 사대부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기록과 유물 속의 가야금



## 석천 한유도(石泉閑遊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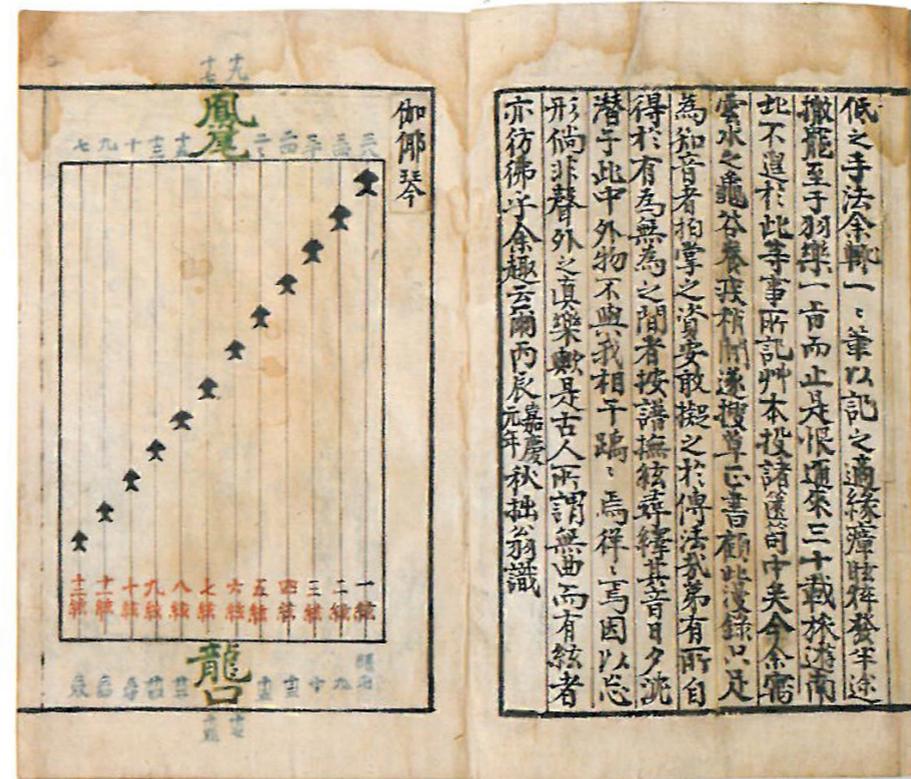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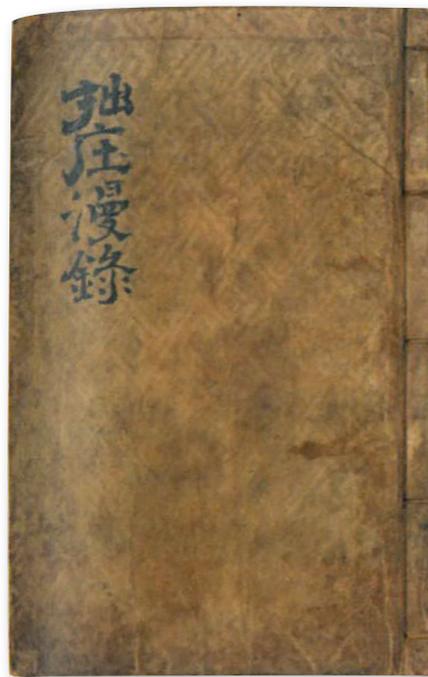
조선 영조 24년(1748)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  
담양 전씨 보령공파 소유, 장충영각 | 세로 87.5cm, 가로 119.5cm

조선시대 5대째 무관을 지냈던 석천 전일상(田日祥, 1700~1753)이 누각 위 난간에 기대 더위를 피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무장의 기개와 풍류가 어우러져 있는 분위기다. 누각 위에 앉아 있는 두 기녀 중 한 명은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다. 가야금 머리 부분인 양이두가 드러난 모습은 오래전 신라 토우나 조선시대 성종 대에 편찬된 『악학궤범』에 실렸던 가야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 기록과 유물 속의 가야금



## 졸장만록(拙庄漫錄)

조선 정조 20년(1796) |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원 소장

지금까지 발견된 가야금 악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곡 반주용 가야금 악보다. 가야금 주법과 생김새 해설을 포함해서 가곡 '삭대엽', '우조', '계면조' 등의 악보가 남아 있다. 가야금 줄을 가리키는 방법을 '三', '六', '五'와 같이 숫자로 기보한 점이 특징이다. 가야금 악보는 거문고에 비해 매우 드물게 전해지기 때문에 가야금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다.





# 기록과 유물 속의 가야금



## 흥선대원군의 정악 가야금(興宣大院君伽倻琴)

조선 후기 | 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 | 길이 162cm, 너비 25.8cm

대한제국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석파 이하응: 李昰應, 1820~1898)은 아들 이재면, 가객 박효관, 안민영 등과 함께 평소 풍류를 즐기곤 했다. 시(詩)·서(書)·화(畫)에 능했던 흥선대원군은 가야금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었는데, 위의 사진 속 정악 가야금이 그의 풍류방에서 발견되었다.



# 기록과 유물 속의 가야금



## 19세기, 가야금을 연주하는 기생(妓生)

조선 후기 기생들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통예술의 여러 갈래를 익히고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오늘날의 전통예술 전승에 일익을 담당했다. 오늘날 전해져오는 국악과 춤 등의 일부는 권번에서 교육을 담당한 명인·명창·명무들에 의해서 학습되고 이어져 내려왔다. 권번에서의 교육 가운데 시조, 가무, 한문, 시, 서 등의 다섯 과목에 가야금 연주도 포함되었다.



# 가야금 재료



‘오동나무’는 울림이 좋고  
 재질이 부드러우면서 습기를 적게 빨아들이고 잘 썩지 않으며  
 불에 쉽게 타지 않는 성질을 지닌다.  
 ‘명주실’은 줄의 재질과 진동 수에 따라서 악기 전체의 음색을 다르게 만든다.  
 ‘안죽’으로 쓰이는 나무는 단단할수록 좋다.



오동나무 +



안죽용 나무 +



명주실 +





# 가야금 재료



## 오동나무

오동나무는 울림이 좋고 재질이 부드러우면서 습기를 적게 빨아들이고 잘 썩지 않으며 불에 쉽게 타지 않는 성질을 지닌다. 또한 무게가 가볍고 광택이 있으며 뒤틀림이나 해충 등에 강하다. 공명이 잘되는 성질 때문에 예로부터 가야금과 같은 악기의 재료로 자주 쓰였다. 20년 이상 자란 재래종의 오동일수록 최상품이며, 재단한 오동나무를 2~3년간 눈과 비, 서리 등을 맞게 한 뒤 섬유질을 삭혀 다시 그늘에서 2~3년 또는 5년 이상 건조하고 나서 가공한다.





# 가야금 재료



## 안죽용 나무

안죽(雁足)으로 쓰는 나무 재료는 단단할수록 좋다. 보통 호두나무, 느티나무, 돌배나무, 벗꽃나무, 박달나무, 대추나무, 단풍나무 등을 쓰며, 이러한 나무들은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 전에 미리 물에 불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악기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줄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이뤄야 하며, 울림통과 정확히 접촉되어야 한다.





# 가야금 재료



## 명주실

전통 현악기는 주로 명주실을 사용해왔다. 줄은 굵기를 달리하면서 높낮이 및 음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재질과 진동 수에 따라 악기 전체의 음색을 다르게 만든다. 전통 가야금에서 필요로 하는 줄은 모두 12 줄로, 낮은 음을 내는 줄은 약 150개 정도의 명주실을 꼬아 만든다.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자면, 끈 줄을 소나무 방망이에 감아 꼬박 하루 동안 물에 담근 후 찜통에 물을 부어 30분 정도 수증기로 쪄낸 다음 소나무에서 나온 송진과 함께 응고시켜 완성한다.



# 가야금 제작 과정



## 13. 좌단 장식하기

며칠 동안 물에 불린 소뼈를 양젯물에 여러 번 삶고, 진을 모두 뺀 뼈를 1mm 안팎의 크기로 저민다. 오른손이 놓이는 좌단 부분의 장식으로 쓴다.

제작순서 +      제작도구 +



# 가야금 제작 과정



## ① 오동나무 고르기

오동나무는 지름이 30cm를 넘고 나이테가 촘촘한 것으로 고른다. 보통 열매가 많이 열리고 몸통 부분에 구멍이 많은 것이 이에 속한다. 외관상 갈라지고 벌어진 나무는 제외한다.



## ② 오동나무 말리기

오동나무 원목은 3년 이상 밖에서 눈비를 맞게 하며 말린다. 마르는 과정에서 나무속에 있는 진이 빠진다.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세심하게 뒤집어주면서 공기가 잘 통하게끔 말린다.





# 가야금 제작 과정



### ③ 울림통으로 쓸 나무 고르기

나무 재질의 강도를 확인해 습기와 온도에 잘 견디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나무를 고른다.



### ④ 도면 그리기

울림통으로 쓸 나무에 길이 130cm, 너비 25cm 정도의 크기로 도면을 그린다.



# 가야금 제작 과정



## ⑤ 재단하기

울림통을 포함해 좌단, 양이두 등의 크기를 설정하고 끌을 이용해 표시한다.



## ⑥ 울림통 파기

길게 재단한 나무의 속을 일정한 두께로 파낸다. 고르게 파는 것이 중요하며, 깎아내고 곱게 다듬는 과정을 반복한다.



# 가야금 제작 과정



## ⑦ 밀판 깎기

정악 가야금은 앞판과 뒤판을 따로 만들지 않지만 밀판의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깎는 과정을 거친다.



## ⑧ 나무판 전체 모양 다듬기

맑고 여음이 긴 소리가 나오도록 거칠고 울퉁불퉁한 표면과 전체 모양을 고르게 다듬는다.



# 가야금 제작 과정



## ⑨ 인두질하기

불에 달군 인두로 표면을 그을린다. 인두질을 하면 나무결이 살아나고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습기로 인한 부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인두질은 마저 남아 있는 진을 제거해 맑은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한다.



## ⑩ 인두질 후 나무판 윤기 내기

인두질을 마친 다음 그을린 울림통 표면을 거친 솔이나 사포로 다듬어준다. 울림통 작업의 최종 단계다.



# 가야금 제작 과정



## ⑪ 좌단 장식하기

며칠 동안 물에 불린 소뼈를 양젓물에 여러 번 삶아 진을 모두 뺀 후 1mm 안팎의 크기로 저민다. 오른손이 놓이는 좌단 부분의 장식으로 쓴다.



## ⑫ 현침 얹기

현침은 가야금의 12줄을 받치는 역할을 한다. 강한 성질의 흑단을 주로 사용하며, 대략 높이 15mm 정도로 제작해 좌단 부분에 얹는다.



# 가야금 제작 과정



## ⑬ 양이두 붙이기

정악 가야금의 끝 부분은 양의 귀 모양의 양이두로 장식한다. 양이두의 용도는 줄을 연결해주는 부들 줄이 걸릴 때 확인할 수 있다.



## ⑭ 명주실 꼬기

여러 개의 실 가닥을 합치는 과정으로 음 높이에 따라 높은 음은 얇게, 낮은 음은 굵게 꼬아야 한다. 어떻게 줄을 꼬았는지가 가야금 소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중요한 과정이다.



# 가야금 제작 과정



## ⑮ 줄 꼬기

가야금 줄 꼬기는 '세줄 꼬기', '외줄 꼬기' 방법으로 이뤄진다. 줄 굵기에 맞게 합쳐진 세 줄을 끈 다음 세 줄을 한 줄로 합친다. 이 줄을 양쪽에서 단단하고 촘촘하게 꼬면 비로소 줄이 완성된다.



## ⑯ 줄 찌기

줄 꼬기가 완성되면 줄을 솥에 넣고 끓는 물에서 충분히 찌는 후에 자연 건조한다. 줄 제작의 마지막 순서로, 삶고 나면 줄이 훨씬 질겨진다.



# 가야금 제작 과정



## ⑰ 안쪽 만들기

줄을 얹어 음의 높낮이를 조절해주는 안쪽을 만드는 과정이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며, 줄의 굵기에 따라 안쪽 머리에 파는 홈도 넓거나 좁게 조절한다.



## ⑱ 돌괘 · 학슬과 줄 연결하기

음높이에 해당하는 굵기의 줄 열두 개를 준비한 후 돌괘에 줄을 묶어 구멍으로 빼낸다. 부들 줄의 끝 부분을 학슬이라 하며, 고리 부분에 명주실을 묶어 양이두와 연결해 줄을 걸어준다.



# 가야금 제작 과정



## ①9 부들 묶기

부들은 무명실을 꼬아 어둡게 염색하여 만든 굵은 끈으로, 8자 모양으로 만들어 끝 부분에 넣어 고정시킨다.



## ②0 안쪽에 줄 얹기

줄의 굵기에 맞게 홈을 판 안쪽을 줄이 움직이지 않게 넣어 줄을 고정시킨다.



# 가야금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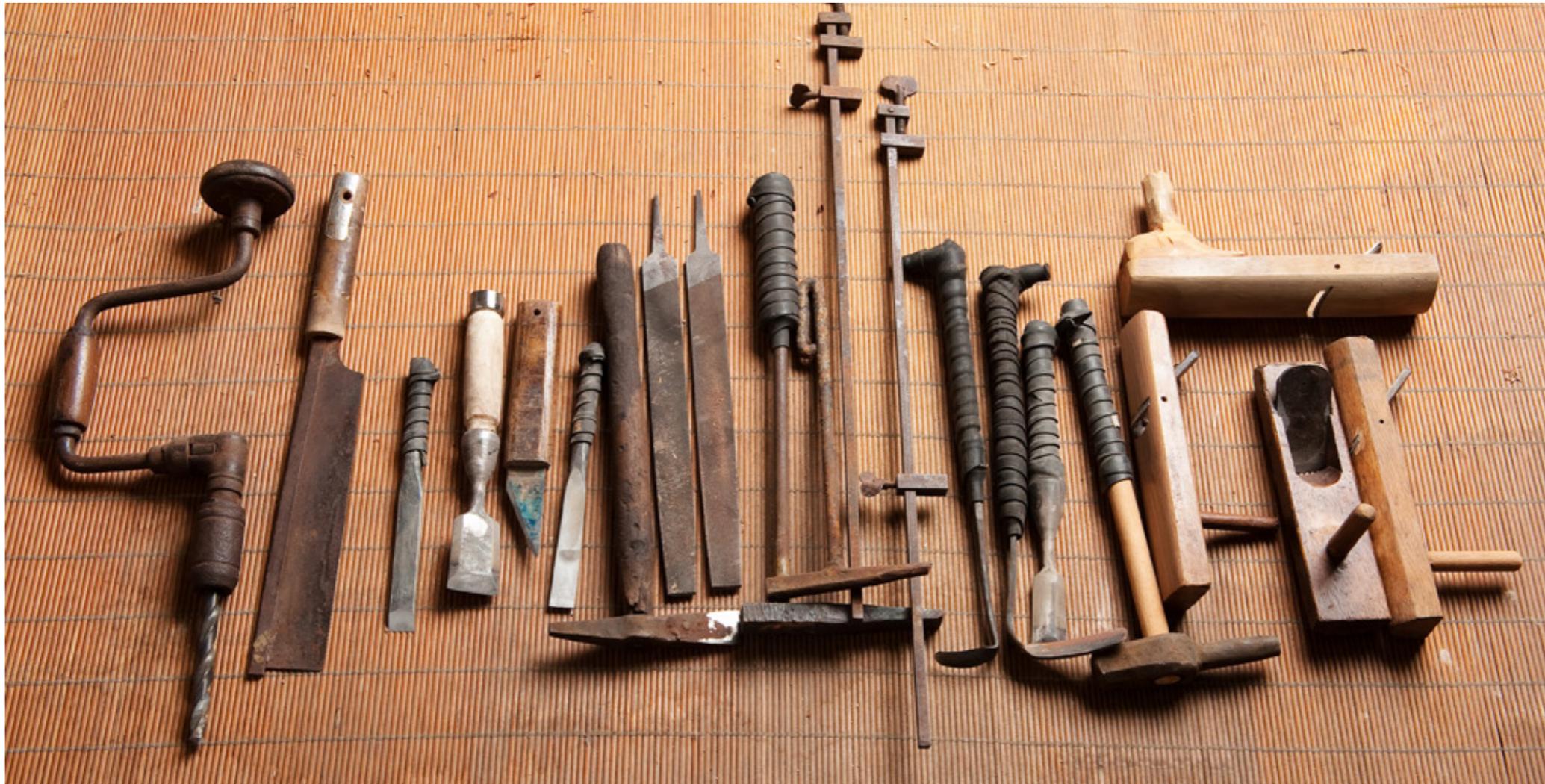


## ㉑ 조율하기

줄 걸기를 마친 가야금은 돌괘를 돌려가면서 장력을 조절하고, 안쪽을 옮겨 음을 맞춘다.



# 가야금 제작 과정



장인이 가야금을 제작할 때 쓰는 다양한 도구들이다. 나무의 표면을 다듬는 '대패', 뜨겁게 달궈 나무의 끝면을 지지고 변형과 뒤틀림을 막는 '인두', 돌괘와 부속품을 깎고 다듬는 '칼' 등 한 대의 가야금이 나오기까지 도구는 각각의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월 속에 의미를 더해가는 손때 묻은 도구들과 함께 가야금의 울림은 깊어간다.



## 二

살펴보기

정악 가야금

산조 가야금

개량 가야금



# 가야금 종류



정악가야금 +

산조가야금 +

개량가야금 +

가야금은 우리 식의 음악어법이나 표현양식 등을 수용하면서 개발되고 발전해왔다. 정악 가야금은 가야국의 우륵이 12곡을 지어 연주한 원형의 가야금이며, 이후 조선 후기 들어 서민음악의 발달과 기악 독주곡 산조의 등장에 힘입어 산조 가야금이 개발되었다. 한편 개량 가야금은 오늘날 국악의 현대화에 발맞춰 무대용으로 개량되었다. 음량이 크고 음역이 넓어 화성적인 연주가 가능한 가야금이다. 또한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 나사를 조이거나 푸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조율을 할 수 있어 조율 시간을 단축하기 쉽다. 이 밖에도 개량 가야금은 정악 가야금이나 산조 가야금과 달리 폴리에스테르줄(합성사)을 사용하므로 줄의 수명이 길고 탄성이 높아 연주 도중 음정이 변할 확률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가야금 종류



가야금은 우리 식의 음악어법이나 표현양식 등을 수용하면서 개발되고 발전해왔다. 정악 가야금은 가야국의 우륵이 12곡을 지어 연주한 원형의 가야금이며, 이후 조선 후기 들어 서민음악의 발달과 기악 독주곡 산조의 등장에 힘입어 산조 가야금이 개발되었다. 한편 개량 가야금은 오늘날 국악의 현대화에 발맞춰 무대용으로 개량되었다. 음량이 크고 음역이 넓어 화성적인 연주가 가능한 가야금이다. 또한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 나사를 조이거나 푸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조율을 할 수 있어 조율 시간을 단축하기 쉽다. 이 밖에도 개량 가야금은 정악 가야금이나 산조 가야금과 달리 폴리에스테르줄(합성사)을 사용하므로 줄의 수명이 길고 탄성이 높아 연주 도중 음정이 변할 확률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가야금 종류



가야금은 우리 식의 음악어법이나 표현양식 등을 수용하면서 개발되고 발전해왔다. 정악 가야금은 가야국의 우륵이 12곡을 지어 연주한 원형의 가야금이며, 이후 조선 후기 들어 서민음악의 발달과 기악 독주곡 산조의 등장에 힘입어 산조 가야금이 개발되었다. 한편 개량 가야금은 오늘날 국악의 현대화에 발맞춰 무대용으로 개량되었다. 음량이 크고 음역이 넓어 화성적인 연주가 가능한 가야금이다. 또한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 나사를 조이거나 푸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조율을 할 수 있어 조율 시간을 단축하기 쉽다. 이 밖에도 개량 가야금은 정악 가야금이나 산조 가야금과 달리 폴리에스테르줄(합성사)을 사용하므로 줄의 수명이 길고 탄성이 높아 연주 도중 음정이 변할 확률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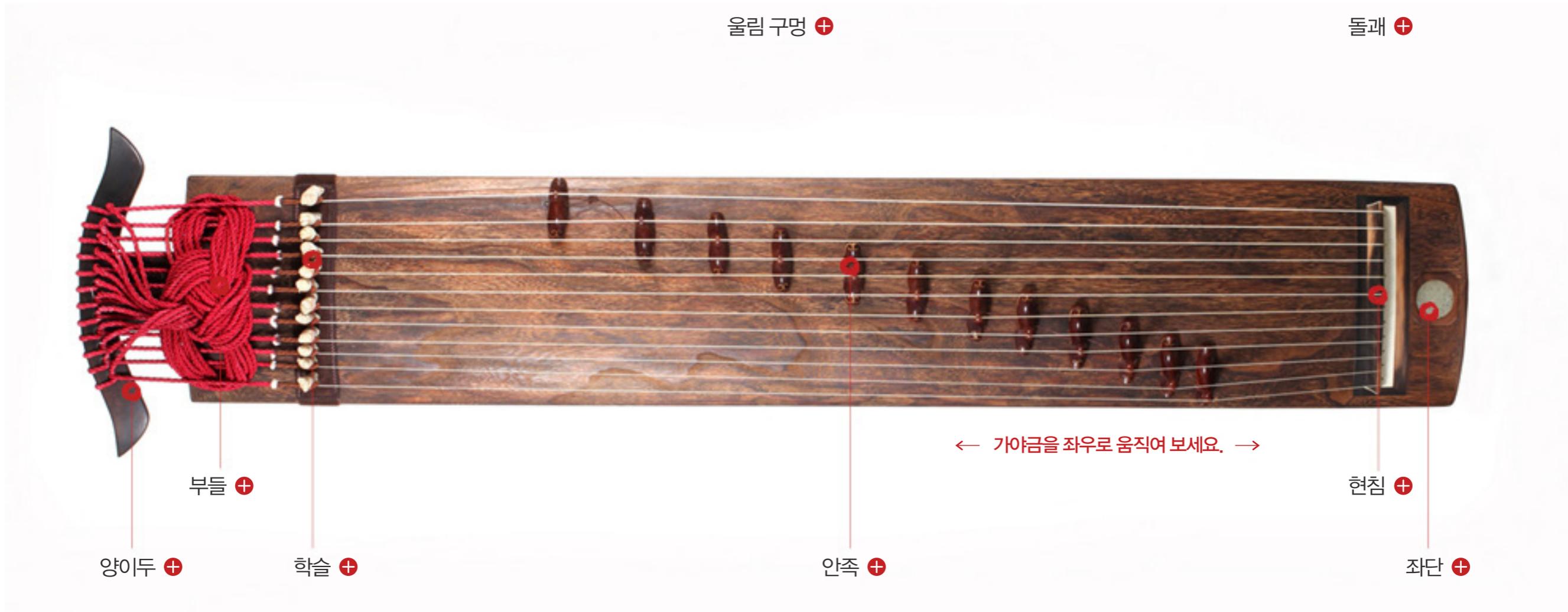
# 가야금 종류



가야금은 우리 식의 음악어법이나 표현양식 등을 수용하면서 개발되고 발전해왔다. 정악 가야금은 가야국의 우륵이 12곡을 지어 연주한 원형의 가야금이며, 이후 조선 후기 들어 서민음악의 발달과 기악독주곡 산조의 등장에 힘입어 산조 가야금이 개발되었다. 한편 개량 가야금은 오늘날 국악의 현대화에 발맞춰 무대용으로 개량되었다. 음량이 크고 음역이 넓어 화성적인 연주가 가능한 가야금이다. 또한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 나사를 조이거나 푸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조율을 할 수 있어 조율 시간을 단축하기 쉽다. 이 밖에도 개량 가야금은 정악 가야금이나 산조 가야금과 달리 폴리에스테르줄(합성사)을 사용하므로 줄의 수명이 길고 탄성이 높아 연주 도중 음정이 변할 확률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정악 가야금의 생김새



## 전체 구조

몸통 끝 부분에는 양의 귀 모양과 비슷한 ‘양이두’가 몸통과 줄을 연결해주고 있다. 이 외에 소리를 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을 비롯해서 12줄을 받치는 기러기 발 모양의 안족, 오른손 주법을 지지하는 현침과 좌단이 정악 가야금을 구성하고 있다.



# 정악 가야금의 생김새



좌단(坐團)

가야금의 가장 오른쪽 끝 부분이다.

오른손으로 가야금을 연주할 때 좌단에 손을 얹고 옆면으로 놓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정악 가야금의 생김새



## 현침(絃枕)

좌단에 약 1.5cm 정도의 높이로 둥그스름한 대를 세워 놓은 것으로, 가야금 줄 수에 따라 홈을 파고 이 홈을 지나 뒤판에 있는 돌래와 줄을 연결할 수 있다.



# 정악 가야금의 생김새



## 안족(雁足)

줄의 진동을 울림통에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가야금 줄을 받치는 기둥이며, 몸통 위에 얹어진다. 현침 방향과 가야금 끝 부들 방향으로 상하로 움직여가며 음의 높이를 조절한다. 기러기 발을 닮았다고 안족이라 부른다. 『악학궤범』에 의하면 가장 큰 안족은 7cm, 가장 작은 안족의 높이는 6.5cm 정도이며, 음이 높을수록 안족의 위치가 현침과 가까워진다.





# 정악 가야금의 생김새



부들

실을 꼬아 만든 굵은 줄로, 가야금의 줄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들을 잡아당겨 가야금 줄의 장력을 조절한다.





# 정악 가야금의 생김새



학슬(鶴膝)    가야금의 줄과 부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학의 무릎을 닮았다고 학슬이라 한다.



# 정악 가야금의 생김새



양이두(羊耳頭)

가야금의 머리 부분이다. 가야금 줄 수에 맞게 구멍이 뚫려 있으며 이 구멍에 부들을 꿰는다. 양의 귀를 닮았다고 양이두라 부른다. 양이두라는 명칭은 『악학궤범』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 정악 가야금의 생김새



## 울림구멍

정악 가야금의 몸통은 오동나무 하나를 통째로 파서 만들기 때문에 뒤판이 따로 없고 단지 큰 구멍만 있을 뿐이다. 울림통의 길이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입구의 길이가 대략 122cm 정도, 너비는 17cm 내외다.





# 정악 가야금의 생김새



## 돌괘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역할로 돌괘를 돌려서 줄을 느슨하게 하기도 하고 팽팽하게 당기기도 한다.  
섬세한 음의 변화를 돌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 최충용 명인이 소개하는 정악 가야금



명인 약력 + 인터뷰 + 연주곡 듣기 +



# 최충웅 명인이 소개하는 정악 가야금



## 최충웅

- 1941년 경기도 화성시 출생
- 1961년 국악사양성소 졸업
- 1987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 졸업
- 1979년 『가야금 정악』 악보 출간(김기수, 최충웅 공저)
- 2006년 국악인생 50년 기념 正樂正心 공연
- 1983년 2006년 KBS 국악대상 수상
- 2001년 대한민국 문화포장 서훈
- 2009년 대한민국 옥관 문화훈장 서훈

현재 국립국악원 원로사범, 양주 풍류악회 회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후보





# 최충용 명인이 소개하는 정악 가야금



## 정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악은 말 그대로 바른 음악이죠. 바른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몸가짐도 반듯해야 하고 마음가짐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치세지음(治世之音)이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정악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 되어온 음악입니다.

## 정악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음악은 어떤 곡들입니까?

정악에 쓰이는 곡은 다양합니다. 국악에 있어서 합주곡 또는 중주곡 정도의 음악에서 연주됩니다. 예를 들자면 평조회상 전곡, 여민락, 중광지곡, 천년만세, 취타 그 다음에 송구여지곡, 수연장지곡 그 외의 가곡을 연주하는 41곡의 가곡 반주곡에서



# 최충용 명인이 소개하는 정악 가야금

정악 가야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악 가야금은 가락은 단순한 편이지만 법규가 엄해요. 그래서 가야금의 정악 가야금을 법(法)자를 써서 법금(法琴)이라고도 합니다.

## 정악 가야금과 산조 가야금을 비교한다면?

정악 가야금은 산조 가야금에 비해서 몸체가 넓고 길어도 길고 또 줄과 줄 사이도 넓습니다. 그래서 빠른 곡은 연주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곡을 연주하기 위해 생긴 악기가 산조 가야금입니다. 산조 가야금의 역사는 대략 100년 정도 됩니다. 정악 가야금은 6세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가야금입니다. 모양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지긴 했지만 줄 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 정악 가야금은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가야금을 시작한 때가 1955년입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 이제 6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가야금을 연주하면 첫째, 마음이 아주 느긋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민속음악을 할 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정악은 특히 몸가짐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뿐만 아니라 몸가짐까지 음악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급한 것도 사악한 것도 내려놓고 수양하는 마음으로 현재까지 연주하고 있습니다.

## 정악 가야금을 연주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야금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정악곡을 배우고 나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악 가야금이 담고 있는 철학 때문입니



# 최충웅 명인이 소개하는 정악 가야금

다. 정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악을 먼저 접해서 올바른 주법과 탄법을 알고 난 후에 느리지만 공간을 이용하고 여백을 중요시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고 정악 가야금을 배워야 합니다. 정악 가야금이 가야금을 배우기 위한 아주 최초의 마음가짐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 빠른 산조 음악을 배우면 되는데 산조 가야금 곡들은 그 주법이 정악 가야금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튕길 것을 뜯는다든지 뜯을 것을 튕긴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산조 가야금인데 정악 가야금은 그렇지 않아요. 튕길 것은 꼭 튕겨야 하고 모지가 할 것은 꼭 모지, 이런 수법 말고 어떤 틀 속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정악 가야금입니다.



# 최충용 명인이 소개하는 정악 가야금



최충용 명인 연주곡 <현악 영산회상 중 '하현 도드리(下絃還入)'>



살펴보기



# 정악 가야금 연주 기본 자세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오른손** + 음색, 강약의 변화, 윗음이나 아래음 혹은 같은음으로 진행되는 선율의 방향성, 연주의 전체 속도, 음역, 구체적인 주법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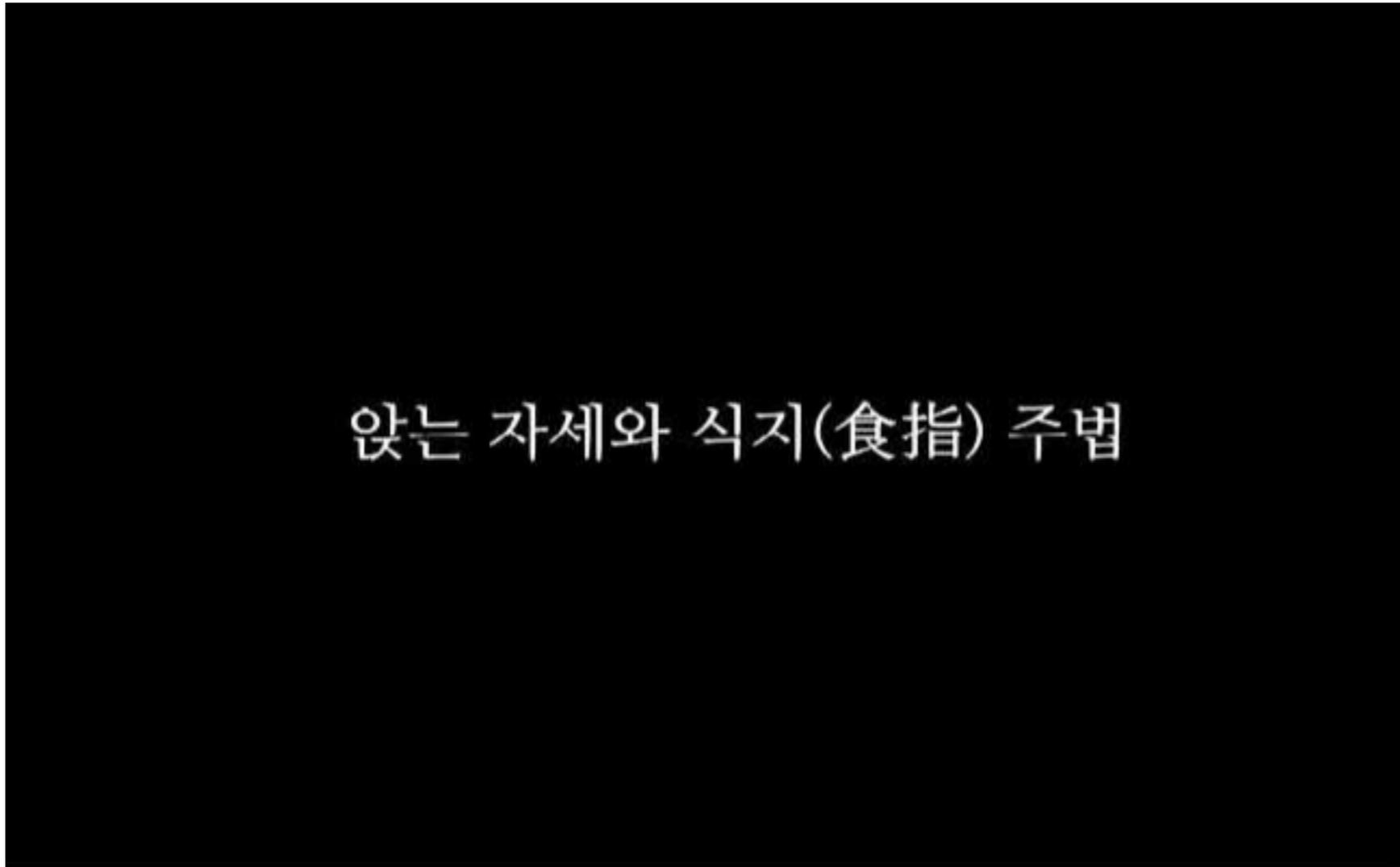


**왼손** + 오른손으로 음을 낸 뒤 그 여음을 이용해 요성, 퇴성, 추성, 평성과 같은 현악기 특유의 표현기법인 농현(弄絃)을 가능하게 한다.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정악 가야금을 연주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주법이다. 식지 끝 부분에 힘을 실어 탄력 있게 줄을 당긴다.



앉는 자세와 식지(食指) 주법

식지(食指) 주법

모지(母指) 주법

장지(長指) 주법

싸랭

튀기기

슬기둥

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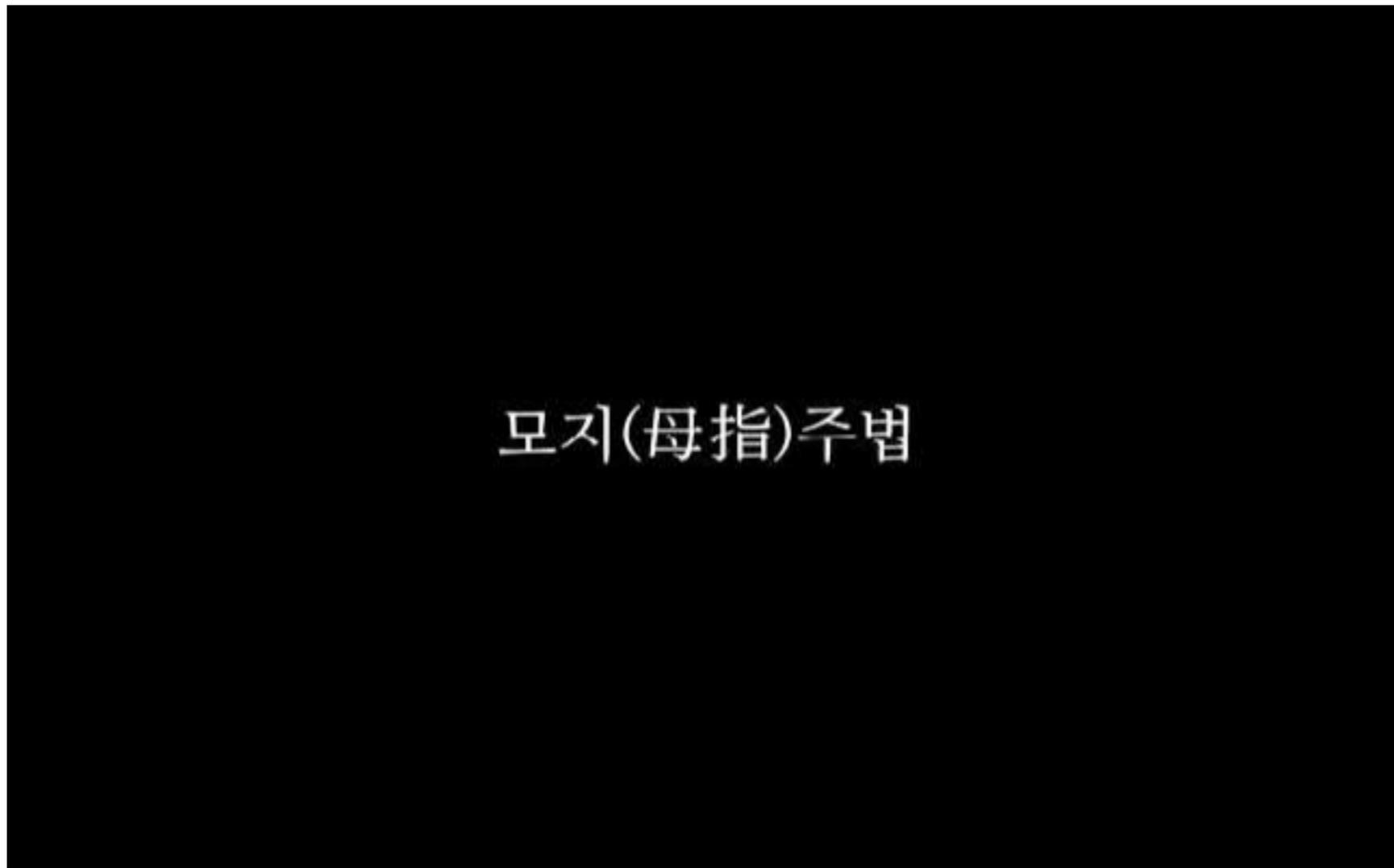
연튀기기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크게 밀고 뜯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한다. 미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짧은 음을 연주할 때에는 뜯어서 연주하기도 한다.



모지(母指)주법

식지(食指) 주법

모지(母指) 주법

장지(長指) 주법

싸랭

튀기기

슬기둥

뜯

연 튀기기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식지 주법과 같은 상태로 오른손을 모아주고 장지 끝 부분에 힘을 실어 줄을 탄력 있게 당겨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장지(長指)주법

식지(食指) 주법

모지(母指) 주법

장지(長指) 주법

싸랭

튀기기

슬기둥

뜰

연 튀기기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장지와 모지를 사용해서 장지에서 모지 순으로 한 옥타브 관계의 음을 차례대로 당겨준다. 두 음을 빠르게 낼 때 쓰인다.



식지(食指) 주법

모지(母指) 주법

장지(長指) 주법

싸랭

튀기기

슬기둥

뜰

연튀기기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모지와 식지를 둥글게 말아 쥐고 식지의 손톱으로 구슬을 치듯 적절하게 힘을 실어 튕겨서 소리 내는 방법이다.



튕기기

식지(食指) 주법

모지(母指) 주법

장지(長指) 주법

싸랭

튕기기

슬기둥

뜰

연 튕기기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식지, 장지, 모지를 사용해 장지와 모지는 한 옥타브 관계를 이루게 하고, 식지, 장지, 모지의 순서로 정해진 리듬에 맞추어 연주한다.



식지(食指) 주법

모지(母指) 주법

장지(長指) 주법

싸랭

튀기기

슬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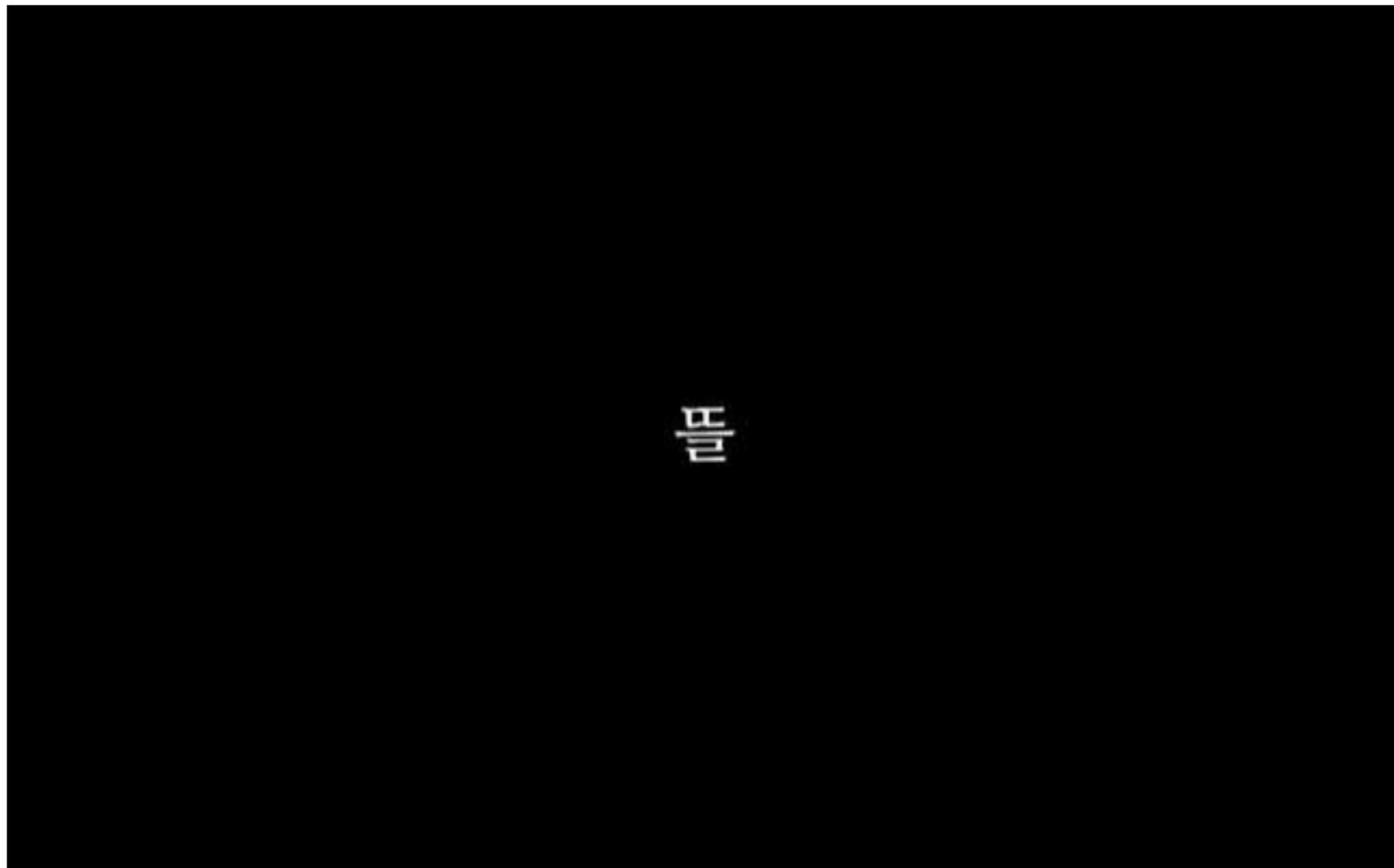
뜰

연 튀기기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모지로 밀어 연주한 음에서 모지의 손톱을 줄 밑으로 넣은 다음 하늘로 치켜 떠 올리듯 들어 올리는 주법이다.



식지(食指) 주법

모지(母指) 주법

장지(長指) 주법

싸랭

튀기기

슬기둥

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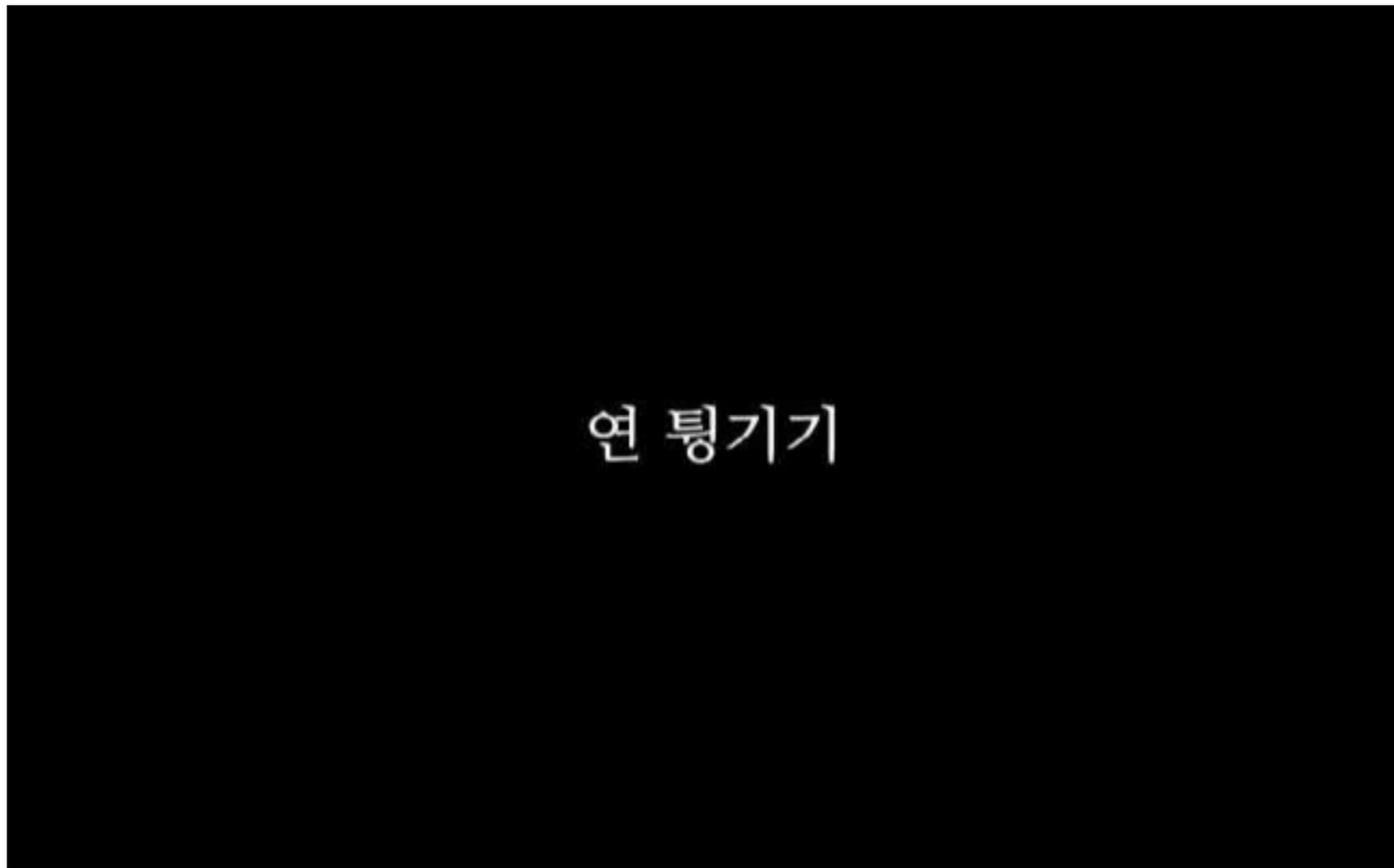
연 튀기기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소지, 무명지, 장지, 식지를 둥글게 말아 쥐고 같은 순서대로 연달아 빠르게 줄을 튕겨내는 주법이다.



연 튕기기

식지(食指) 주법

모지(母指) 주법

장지(長指) 주법

싸랭

튕기기

슬기둥

뜰

연 튕기기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소리를 내려는 줄의 위치에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줄을 타면서 동시에 왼손 식지와 장지를 이용해 그 줄의 안쪽 아랫부분을 순간적으로 굴러내는 주법이다.



전성(轉聲)

퇴성(退聲)

추성(推聲)

압성(壓聲)

체괘(替掛)

농현(弄絃)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해당 줄을 왼손 식지와 장지, 모지를 이용해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줄을 탄 소리의 여운을 이용해 몸 안쪽으로 지그시 끌어당기  
듯 연주한다.



전성(轉聲)

퇴성(退聲)

추성(推聲)

압성(壓聲)

체괘(替掛)

농현(弄絃)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오른손으로 줄을 탄 소리의 여운을 이용해 모지, 검지, 장지를 움켜쥐고, 왼손 소지로 줄을 지그시 눌러 연주한다. 음을 약간 높게 내리는 목적이 있다.



추성(推聲)

전성(轉聲)

퇴성(退聲)

추성(推聲)

압성(壓聲)

체괘(替掛)

농현(弄絃)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다른 표현으로 '뜯동'이라고도 한다. 왼손 식지와 장지를 움켜쥐고, 음의 여운을 이용해 줄을 순간적으로 눌러내는 주법이다.



압성(押聲)

전성(轉聲)

퇴성(退聲)

추성(推聲)

압성(壓聲)

체괘(替掛)

농현(弄絃)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6번째 줄 태(太)음을 황(黃)음으로 바꾸기 위해 안쪽 위치를 옮긴다. 계면조 곡을 연주할 때 쓰인다.



체괘(替掛)

전성(轉聲)

퇴성(退聲)

추성(推聲)

압성(壓聲)

체괘(替掛)

농현(弄絃)



# 정악 가야금 연주 방법

줄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여음에 변화를 주고, 음색과 음높이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 음높이에 변화를 줄 정도로 떨지 않는다.



전성(轉聲)

퇴성(退聲)

추성(推聲)

압성(壓聲)

체괘(替掛)

농현(弄絃)



# 산조 가야금의 생김새



## 전체 구조

정악 가야금에 비해 몸통의 크기가 작고 거문고와 같이 두 개의 나무판을 이어붙이는 형태의 모양이다. 양이두 대신 봉미에 줄과 부들을 걸며, 줄과 줄 사이의 간격도 좁은 형태다. 반면 줄이 12개인 점, 안쪽으로 각 줄을 받치고 있다는 점, 현침과 부들 쪽 줄 밑에 형짚을 대는 것은 정악 가야금과 다르지 않다.



# 산조 가야금의 생김새



좌단(坐團)

가야금의 가장 오른쪽 끝 부분이다.

오른손으로 가야금을 연주할 때 좌단에 손을 얹고 옆면으로 놓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산조 가야금의 생김새



현침(絃枕)

좌단 바로 약 1.5cm 정도의 높이로 둥그스름한 대를 세워 놓은 것으로, 가야금 줄 수에 따라 홈을 파고 이 홈을 지나 뒤판에 있는 돌래와 줄을 연결할 수 있다.





# 산조 가야금의 생김새



안죽(雁足)

가야금 줄을 받치는 기둥으로 몸통 위에 얹어진다. 현침 방향과 가야금 끝 부들 방향으로 상하로 움직여가며 음의 높이를 조절한다. 기러기 발을 닮았다고 안죽이라 부른다.





# 산조 가야금의 생김새



부들

실을 꼬아 만든 굵은 줄로, 가야금의 줄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들을 잡아당김으로써 전체 가야금 줄의 장력을 조절한다.





# 산조 가야금의 생김새



학슬(鶴膝)      가야금의 줄과 부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학의 무릎을 닮았다고 학슬이라 한다.



# 산조 가야금의 생김새



봉미(鳳尾)    가야금의 가장 끝 부분이다. 봉황의 꼬리를 상징하는 무늬가 새겨져 있어 '봉미'라고 한다.



# 산조 가야금의 생김새



울림구멍

밑판에서 각각 약 3등분한 위치에 뚫린 구멍이다.

음(陰)을 상징하는 달과 양(陽)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한다.





# 산조 가야금의 생김새



## 돌괘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역할로 돌괘를 돌려서 줄을 느슨하게 풀기도 하고 팽팽하게 조이기도 한다  
섬세한 음의 변화를 돌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 지성자 명인이 소개하는 산조 가야금



명인 약력 + 인터뷰 + 연주곡 듣기 +



# 지성자 명인이 소개하는 산조 가야금



## 지성자

- 1945년 서울 출생
- 성금연, 지영희, 한영숙, 박초월, 최승희, 김명환 사사
- 1963년 아시아 민속예술대회 최우수상
- 1990년 KBS국악대상(연주상) 수상

현재 동경 한국YMCA국제문화부 지도위원,  
지성자 가야금 연구소장, 성금연 가락 보존회 대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가야금산조 보유자





# 지성자 명인이 소개하는 산조 가야금

## 산조 가야금이 연주되는 곡을 소개해주세요.

산조 가야금은 정악 가야금과 달라서 크기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선 독주곡으로 연주하는 산조가 있고, 반주 형식으로 ↕ 연주하는 민요곡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전통음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나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작곡을 연주할 수도 있지만 산조와 민요반주 시나위를 중심으로 여러 방면에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 산조 가야금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신다면?

산조 가야금은 오른손 주법도 중요하지만 이 왼손에 있는 ‘농현(弄絃)’이 굉장히 중요해요. (농현을 선보이며) 지금 보신 것처럼 왼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죠? 소리 내려는 음의 여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소리와 오래 함께해야 소리가 가진 맛을 더욱 더 잘 낼 수가 있습니다.

## 선생님에게 가야금은 어떤 의미를 가진 악기인가요?

저는 어머니(성금연 명인) 배 속에서부터 가야금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와 정말 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릴 때는 손이 작아서 연주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 무용과 소리를 배우고 거의 10살이 넘어갈 무렵부터 가야금을 배우면서 어머니 하시는 대로 보고 따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네요. 저한테 가야금은 제 인생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금 산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아가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젊으면 젊은 대로 좋은 소리가 나고 나이를 먹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주름과 함께 느긋한 맛으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가야금 산조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때그때 사연으로 풀어내는 느낌 때문이지요.



# 지성자 명인이 소개하는 산조 가야금



## 산조 가야금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한 말씀?

가야금을 배우시려면 우선 악기를 품안에 아기처럼 얹어 놔주세요. 그럼 아기가 웃으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악기도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가야금에는 가족이 있어요. 아빠, 엄마, 아기.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하듯 우리는 가야금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지요. 보통 가야금을 뜯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법은 뜯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뜯고 튕긴다! 이것은 음양이에요. 조이고 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음양을 아시죠? 음과 양이 있듯이 음들을 모으고 가고 풀고 갑니다. 또 짚는 것, 그다음에 밀고, 뒤집기 등 여러 가지 연주 방법을 배우시고 그다음에 왼손은 오른손과 함께 흐름으로 쫓아가면 됩니다.



# 지성자 명인이 소개하는 산조 가야금



지성자 명인 병창곡 <춘향가 중 '천자 뒤풀이'>





# 산조 가야금 연주 방법

**오른손** + 정약가야금에서 거의 쓰지 않는 ‘뜯는 주법’을 가장 많이 쓴다. 이 외에도 손톱으로 줄을 튕기거나 모지와 식지를 뒤집을 때, 모지와 장지를 동시에 뜯을 때 다양한 오른손 주법을 활용한다.



**왼손** + 줄을 위아래로 눌러 흔들어주는 ‘농현(弄絃)’은 음과 음 사이를 연결하거나 음색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음을 보다 다채롭게 장식하려는 의도로 쓰인다.



# 산조 가야금 연주 방법

오른손 모지, 식지, 장지를 사용한다. 손가락 측면 끝 부분을 줄 밑에 끼우듯이 넣고 줄 아래에서 위로 탄력 있게 당겨준다.



뜯기

튀기기

쌍 튀김

집는 주법

미는 주법

뒤집는 주법





# 산조 가야금 연주 방법

모지와 식지를 둥근 모양으로 말아 쥐고 식지의 손톱으로 구슬을 치듯 튕겨 소리를 낸다. 식지로 줄을 뜯고 이어서 연주한다.



뜯기

튕기기

쌍 튕김

집는 주법

미는 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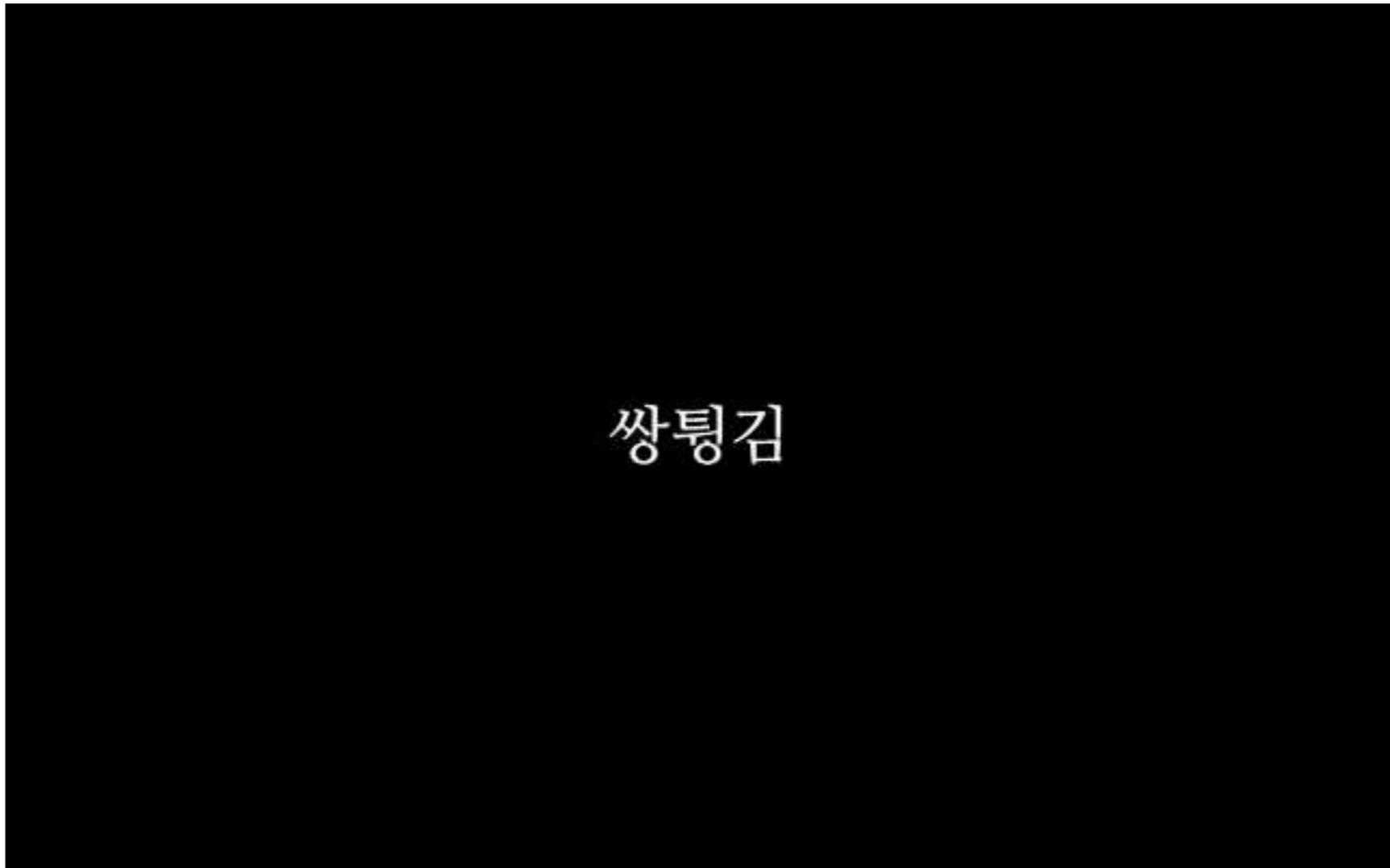
뒤집는 주법





# 산조 가야금 연주 방법

두 번 연속으로 소리를 내고자 하는 줄을 튕길 때 쓴다. 첫 음은 장지로, 두 번째 음은 식지로 튕긴다.



뜯기

튕기기

쌍 튕김

집는 주법

미는 주법

뒤집는 주법





# 산조 가야금 연주 방법

**집는 주법** 두 개의 음을 신속하게 내기 위한 주법이다. 아랫 줄은 식지로, 윗줄은 모지로 집는 주법과 아랫 줄은 장지로, 윗 줄은 모지로 집는 방법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아랫 줄은 밀어 줄에 붙이고, 윗줄은 뜯어서 연주한다. **미는 주법** 윗줄에서 아랫 줄로 내려갈 때 사용한다. 정악 가야금 주법의 검지 주법과 같이 검지로 줄을 미는 방법과 검지와 장지로 연이어 연주하는 방법이 있다. **뒤집는 주법** ‘거꾸로 집는 주법’이라고 한다. 윗줄에서 아랫 줄로 내려갈 때 윗줄은 모지로, 아랫 줄은 식지로 거꾸로 뒤집듯 뜯는다.

뜯기

튀기기

쌍 튀김

집는 주법

미는 주법

뒤집는 주법

집는 주법, 미는 주법, 뒤집는 주법



# 산조 가야금 연주 방법

기본음 위의 줄을 눌러 반음 가까이 높였다가 재빨리 본래의 음으로 복귀시키는 대표적인 왼손 주법이다.

꺾는 음

농현(弄絃)

꺾는 음



# 산조 가야금 연주 방법

산조 가야금의 농현은 연주자의 악곡 해석과 개성적인 표현을 느낌에 따라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꺾는 음

농현(弄絃)

농현(弄絃)



# 개량 가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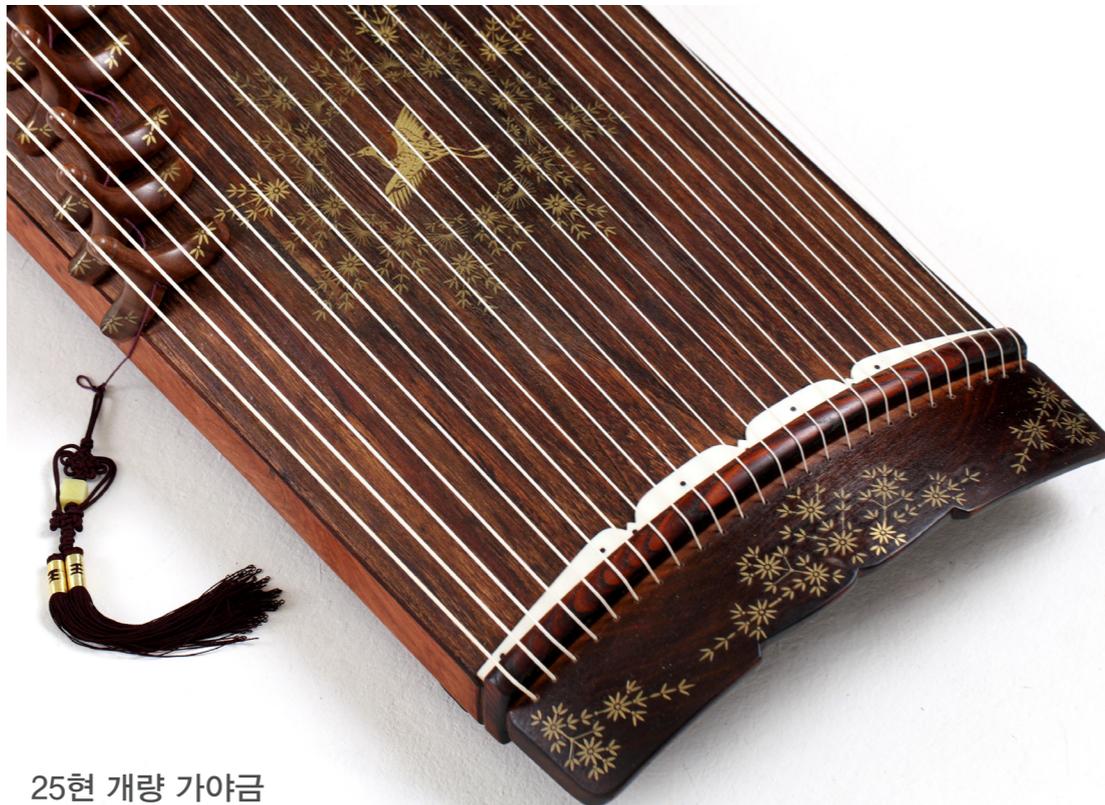
25현 개량 가야금

가야금 줄의 수를 늘려서 음역을 확대하고, 7음계와 화성을 좀 더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도록 개량한 가야금으로 15현, 17현, 18현, 21현, 22현, 25현이 있다. 그밖에 철가야금, 저음가야금, 중음가야금, 고음가야금도 쓰이고 25현 가야금의 경우 음역이 가장 넓어 창작곡 연주에 많이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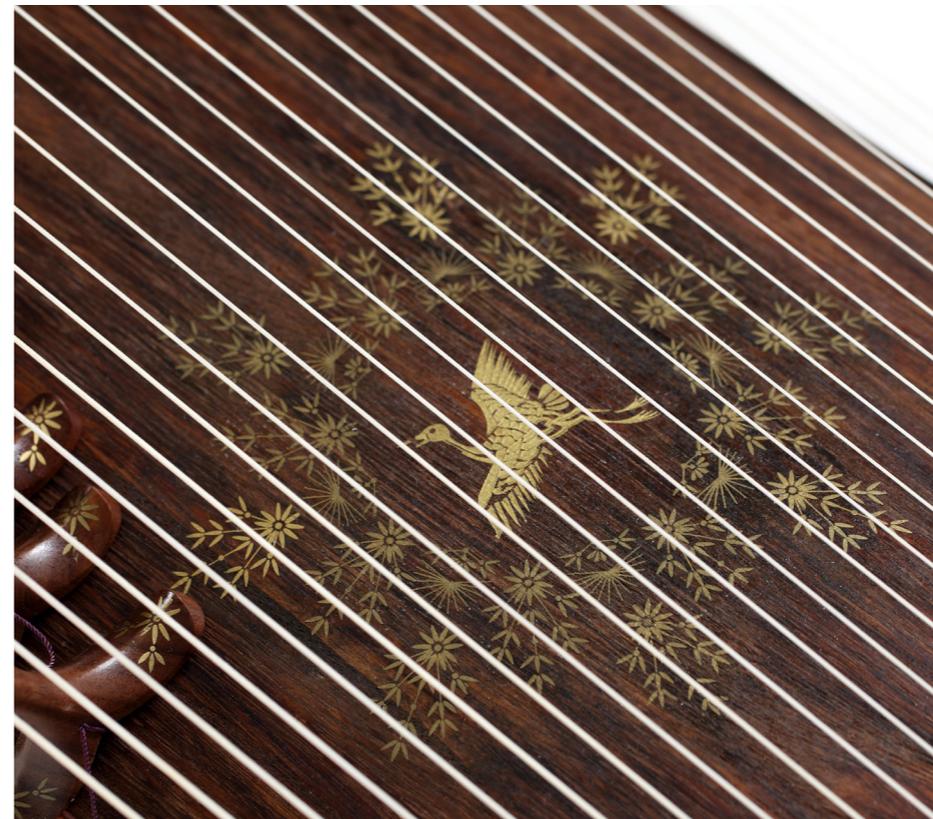


# 개량 가야금

1969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으며 가야금의 줄을 금속성 재료로 제작하고 주로 무용반주음악에 활용한 '철가야금', 1976년 가야금연주자 천익창이 제작한 '창금', 1986년~1990년에 걸쳐 가야금 연주자 황병기가 악기장 박성기에게 의뢰해 만든 '17현 가야금', 1989년 경 작곡가 박일훈이 음색은 유지시키면서 음역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악기장 고흥곤에게 의뢰해 만든 '18현 가야금', 1987년경 작곡가 박범훈이 고흥곤에게 의뢰해 만든 고음·중음·고음 가야금,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과 함께 제작되어 선보인 가야금으로 악기 울림통을 기존 악기의 두 배 이상으로 키우고 폴리에스테르 합성재료를 사용한 줄로 연주한 '22현 가야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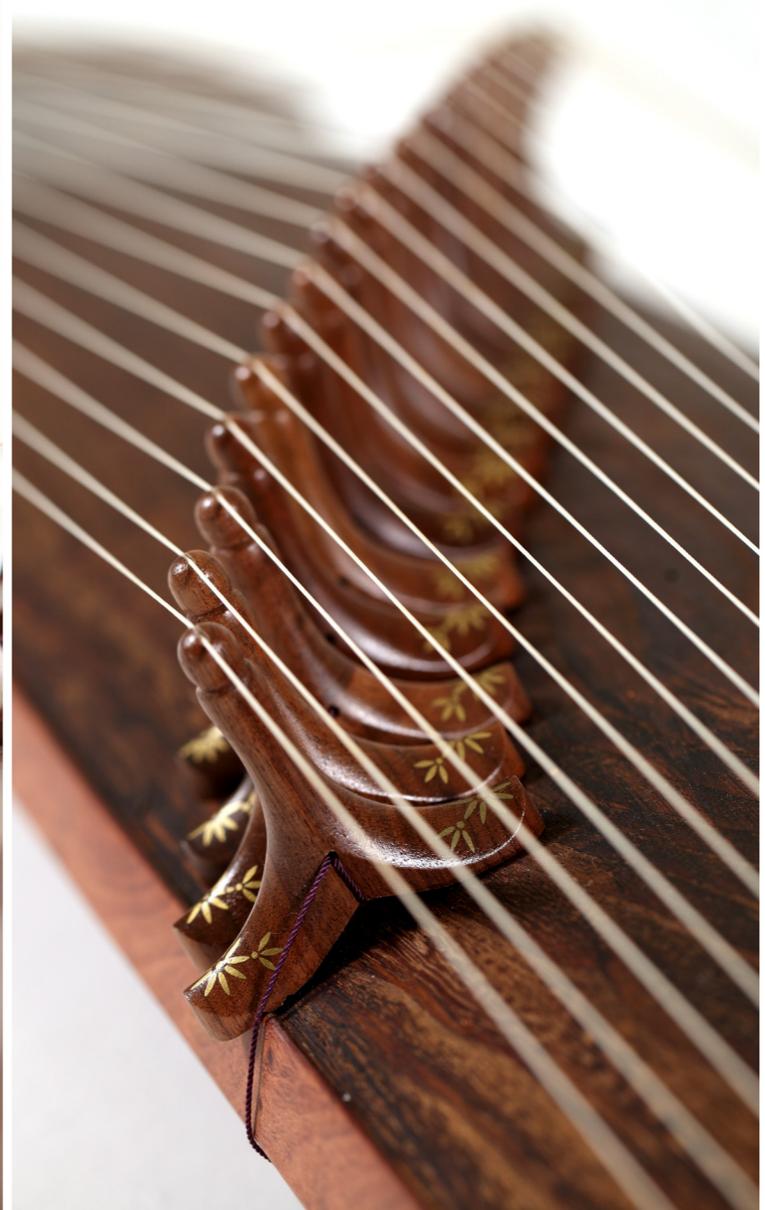
25현 개량 가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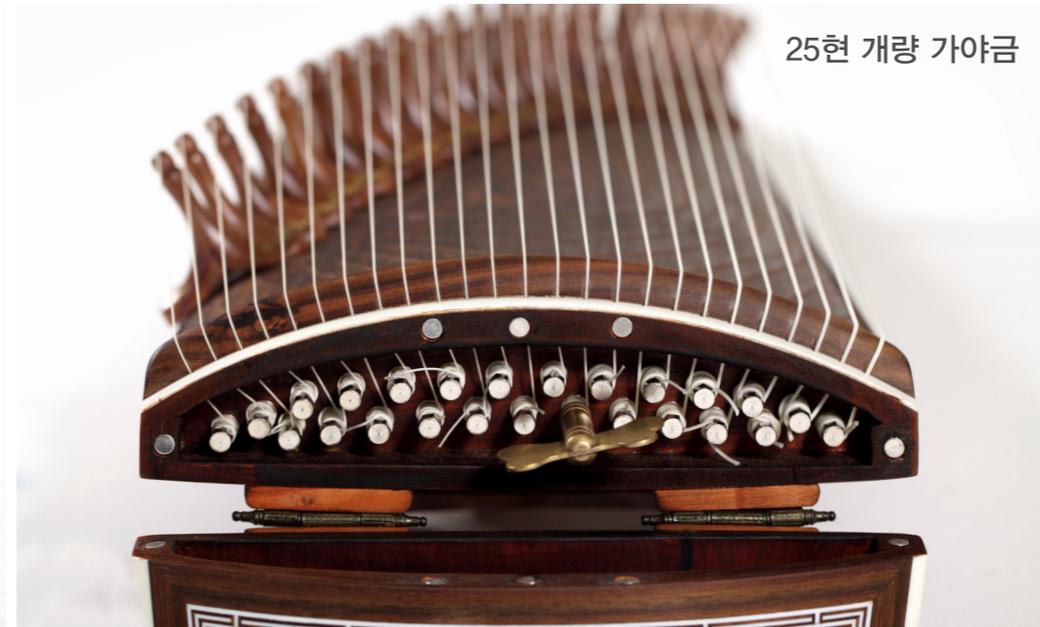
# 개량 가야금

25현 개량 가야금





# 개량 가야금



25현 개량 가야금

## 15현

가야금의 명인이었던 성금연이 1960년대에 개량한 것으로, 전통 가야금의 1현과 2현 사이와 3현과 4현 사이, 12현 뒤에 각각 한 줄씩을 더 추가한 것이다. 모두 3줄이 늘어나 음악의 용도에 따라 새로 조율을 하지 않고도 연주할 수 있다. 악기의 음량은 유지하고, 기존의 12현 산조 가야금의 조율법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

## 21현

1985년 작곡가 이성천에 의해 개량된 가야금이다. 가야금 명주실로 표현할 수 있는 장력의 최저치와 최대치를 고려해 12현 가야금의 위 아래, 9줄을 늘려 제작했다. 조율은 거의 5음계로 하지만 곡에 따라서 7음계로 조율되는 경우도 있다. 가야금의 음역이 넓어지고 7음 음계 연주가 가능해짐으로써, 창작곡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 25현

1994년 제작된 악기로, 7음 음계로 조율할 수 있으며 1998년 이후 전국의 주요 국악관현악단과 개인 연주자들에 의해,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량 가야금이다.



### 三

체험하기

음계 및 개별음

연주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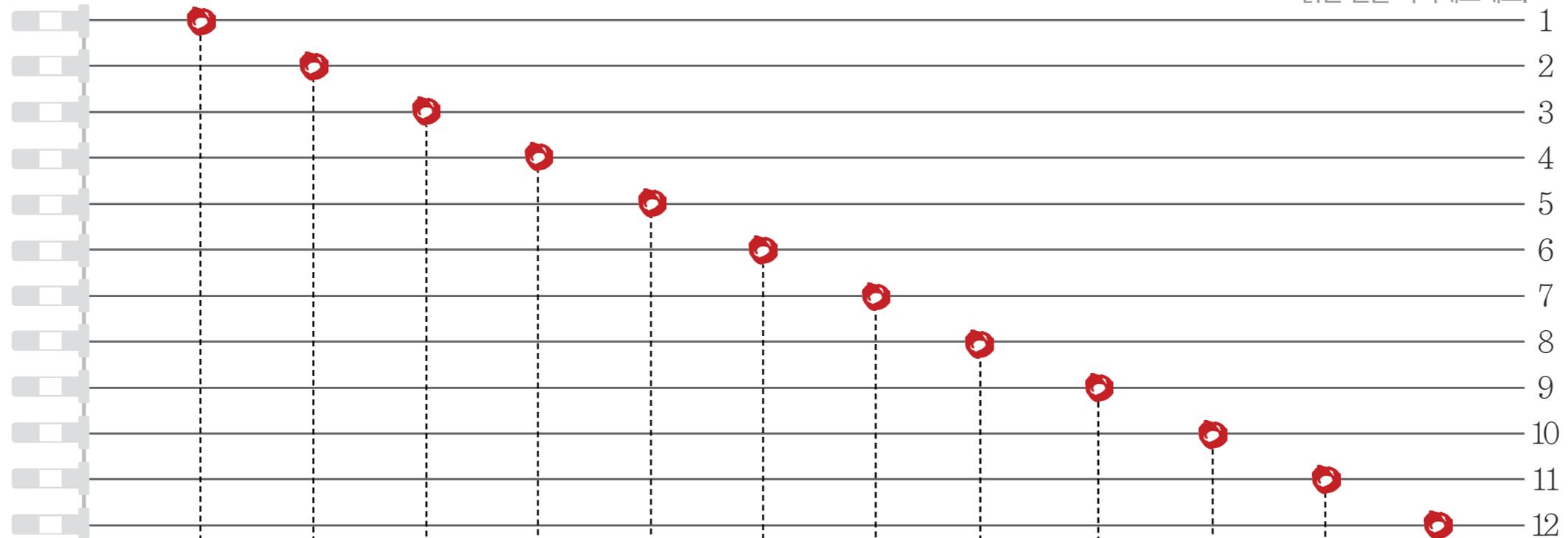
감상하기

현장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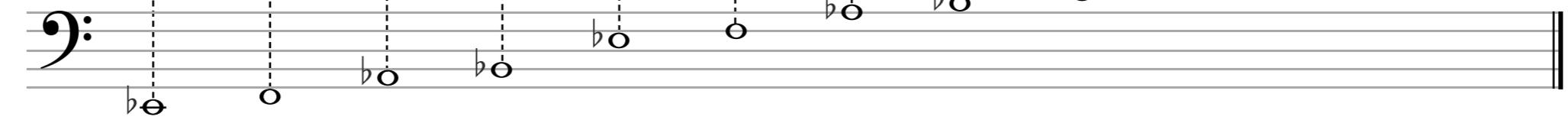


# 음계 및 개별음

붉은 원을 터치해보세요.



평조  
계면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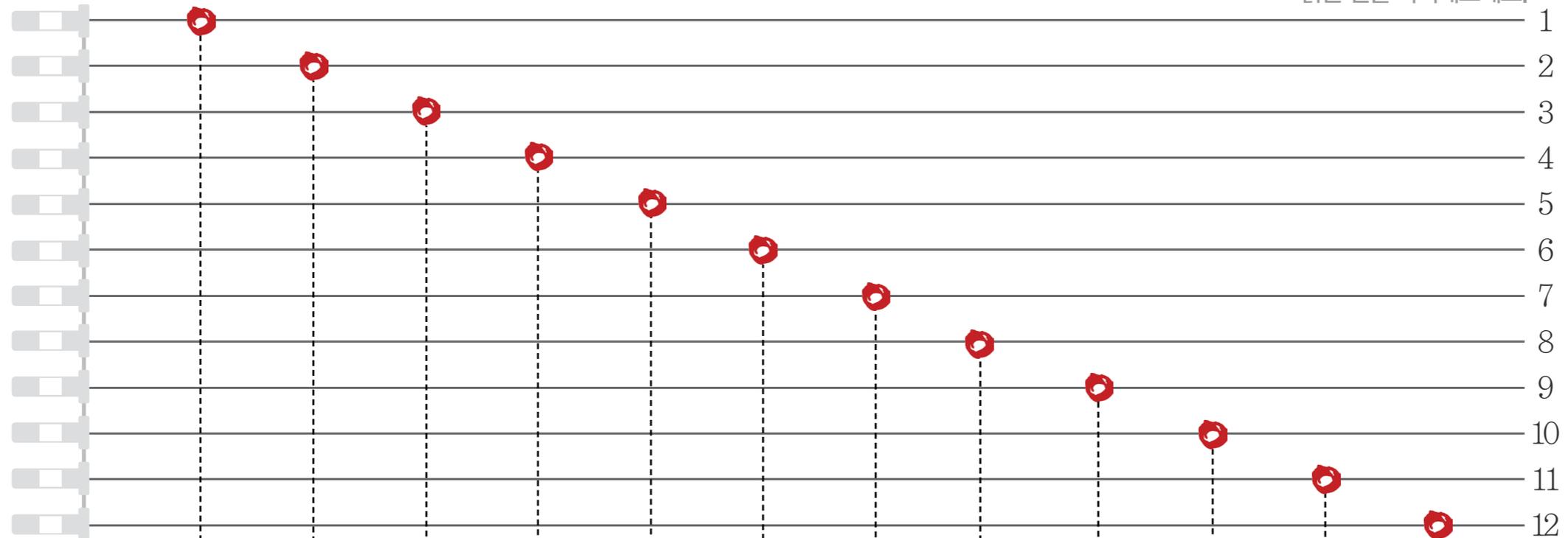
줄이름	황(橫)	태(汰)	중(仲)	임(林)	황(橫)	태(汰)	중(仲)	임(林)	남(備)	황(黃)	태(太)	중(仲)
구음(口音)	흥	등	덩	둥	당	동	징	징	지	당	동	덩

정악가야금      산조가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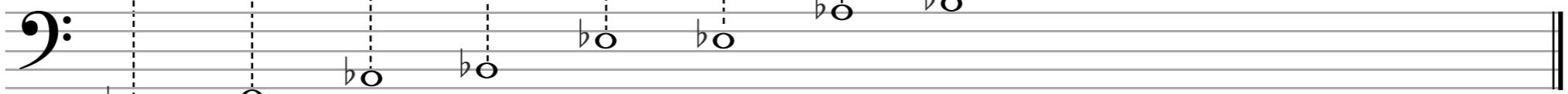
# 음계 및 개별음

붉은 원을 터치해보세요.



평조 +

계면조



줄이름	황(橫)	태(汰)	중(仲)	임(林)	황(橫)	황(橫)	중(仲)	임(林)	무(無)	황(黃)	태(太)	중(仲)
구음(口音)	흥	등	덩	둥	당	당	징	징	지	당	동	덩

정악가야금

산조가야금



# 음계 및 개별음

붉은 원을 터치해보세요.

줄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음(口音)	청	흥	등	당	동	징	땅	지	행	칭	쫑	꽤

산조 가야금의 구음 현재 통용되는 조현 음계로, 실제 음은 장5도 아래음이다.

정악가야금

산조가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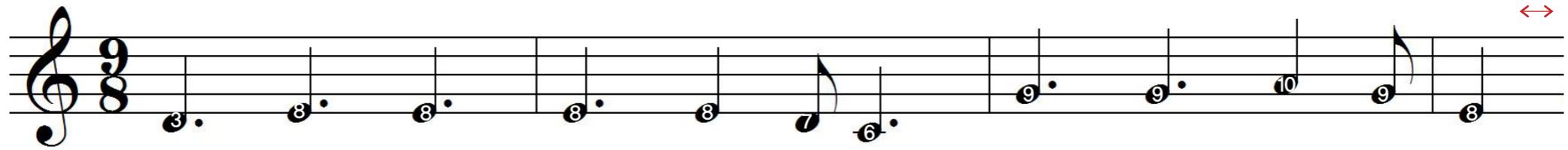
Musical notation for the song 'Ari-rang' in 8/8 time. The notation is on a single staff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melody consists of quarter and eighth notes. A red double-headed arrow at the end of the staff indicates a repeat or continuation.

Fingerboard diagram for the song 'Ari-rang' on a 12-string instrument. The diagram shows the fret positions for each string, numbered 1 through 12. The strings are numbered 1 to 12 on the right side. The fret positions are: 1 (1st string, 1st fret), 2 (2nd string, 2nd fret), 3 (3rd string, 3rd fret), 4 (4th string, 4th fret), 5 (5th string, 5th fret), 6 (6th string, 6th fret), 7 (7th string, 7th fret), 8 (8th string, 8th fret), 9 (9th string, 9th fret), 10 (10th string, 10th fret), 11 (11th string, 11th fret), and 12 (12th string, 12th fret).

▶ 아리랑 원곡 듣기

아리랑    도라지    꽃분네야

체험하기



▶ 도라지 원곡 듣기

아리랑    **도라지**    꽃분네야



A musical staff in 3/4 time with a treble clef. The notes and fingerings are: 6 (finger 6), 6 (finger 6), 6 (finger 6), 5 (finger 5), 6 (finger 6), 6 (finger 6), 6 (finger 6), 4 (finger 4). A red double-headed arrow is at the end of the staff.

A diagram of a guitar fingerboard with 12 frets. The frets are numbered 1 through 12 on the right side. The fret positions are: 1 (1st fret), 2 (2nd fret), 3 (3rd fret), 3+ (3rd fret sharp), 4 (4th fret), 5 (5th fret), 5+ (5th fret sharp), 6 (6th fret), 7 (7th fret), 8 (8th fret), 9 (9th fret), 10 (10th fret), 11 (11th fret), 12 (12th fret).

▶ 꽃분네야 원곡 듣기

아리랑    도라지    **꽃분네야**

체험하기



# 감상하기

도라지

광주가야금연주단

개량가야금

곳거리

성금연류가야금산조중

산조가야금

우조가락도드리

천년만세중

타령

중광지곡

정악가야금





# 현장체험

## 전시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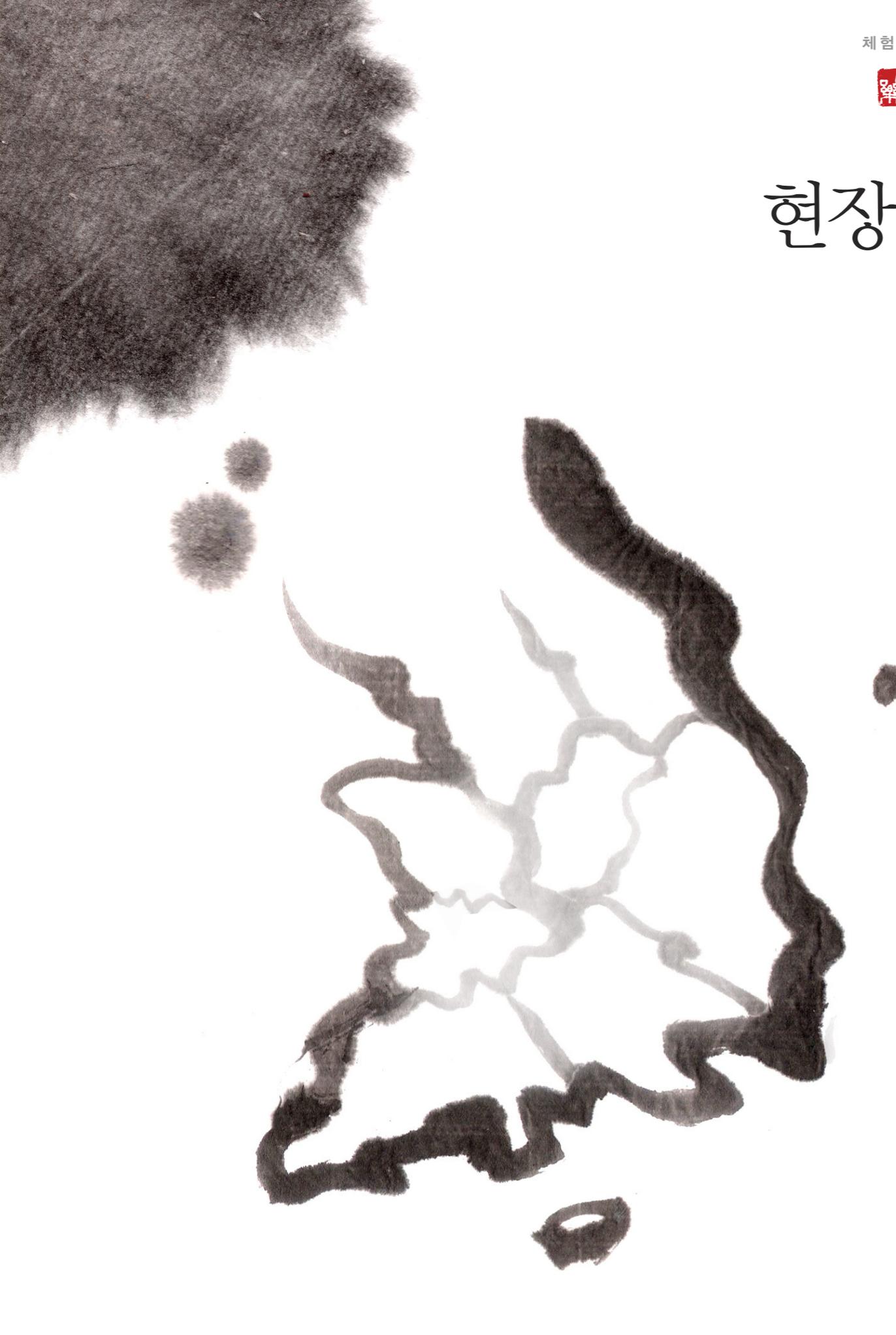
- + 국립국악원
- + 국립국악박물관
- +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 + 기산국악당

## 악기 제작

- +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 +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 + 가얏고 마을, 가야금 제작 체험

## 악기 체험

- +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 + 국립극장 전통예술 아카데미
- + 우륵 박물관 가야금 체험 프로그램





#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



## 국립국악원 토요일상설무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상설국악공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춤과 노래, 악기 연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예능 종목도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80분가량, 관람 연령은 취학아동 이상이다. 24세 이하 성인과 경로 및 동반 1인, 장애인 및 동반 2인 등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연 문의는 02) 580-3300으로 하면 된다.

[www.gugak.go.kr](http://www.gugak.go.kr)





#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



## 국립국악박물관 <악기 전시실>

서울시 서초동 국립국악원 내에 위치한 국악박물관은 <원류음악실>에서 고대 출토 유물과 신라 토우 등에 등장한 악기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편에 가야금 제작 공방이 재현돼 있다. <서민음악실>에는 생활 속의 우리 악기를 전시해놓았다. <세종음악실>을 찾으면 편경 제작 과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www.gugak.go.kr](http://www.gugak.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22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일반인을 위한 단기강좌  
서울 삼성역 근처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개최하는 단기 강좌 수강생 모집을 활용하면 악기장에게 직접 악기 제작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전통악기 과목의 경우 15명 내외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해마다 모집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www.kous.or.kr](http://www.kous.or.kr) 혹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료와 교육기간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의 집 1층 문화연수팀 02) 3011-1702, 1788 에서 안내하고 있다.





#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22



##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전통예술의 보급과 일반인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일반인 강좌를 개설해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과정에 해당하며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자 과정과 중급단계 돋움과정, 고급단계 맺음과정 및 심화과정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국립국악원 내 국악연수관 안에서 전통악기를 직접 배울 수 있다. 교육 문의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 [www.ktpaf.org](http://www.ktpaf.org) 나 02) 580-3141로 하면 된다.





# 현장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4-67



## 국립극장 전통예술아카데미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위치한 국립극장에서는 전통예술에 대한 열정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악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실력에 따라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프로그램이 달라지므로 국립극장 홈페이지 [www.ntok.go.kr](http://www.ntok.go.kr) 에서 수업기간과 시간, 수강료, 접수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 현장체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 인천국제공항 국악상설공연

인천국제공항을 찾으면 1년 365일, 국악 연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만난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센터(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동·서편(2개소) 및 탑승동 3층 중앙서편(1개소)에서 펼쳐지는 국악 공연은 정악과 민속악 중심의 전통 음악으로 채워지며, 한국문화거리(여객터미널 4층 한국문화거리)에서는 주로 창작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세부 일정과 공연 내용은 한국전통문화센터 032) 743-0357, 한국문화거리 032) 741-3423로 문의 가능하다. <http://www.airport.kr>





# 현장체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21-1



##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에서는 현악기 공방, 타악기 공방, 현 작업실 공간을 활용한 악기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난계국악기제작촌, 난계국악박물관에서도 국악기의 모습과 생생한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nangyekukak.com](http://www.nangyekukak.com) 이다.





# 현장체험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래빈리 162



## 우륵 박물관 가야금 체험 프로그램

오늘날 가야금을 있게 한, 악성 우륵의 관련 자료와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야박물관(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에 위치)내 우륵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가야금 체험 프로그램이다. 6회에 걸쳐 가야금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www.daegaya.net](http://www.daegaya.net) 과 054) 950-6112 로 문의하면 된다.





# 현장체험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399



## 기산국악당

산청 출신 국악이론가 기산 박헌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는 곳이다. 복원된 기산 선생의 생가를 둘러볼 수 있으며, 전시된 국악기를 직접 연주해볼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기산관, 전시관, 교육관, 옥외공연장을 갖추고 있고, 기산관과 전시관에는 국악기 50여점을 전시, 인근 관광지인 남사예담촌과 연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남사마을에 위치해 있다.





# 현장체험



경북 고령군 고령읍  
괘빈리 185-1



## 가얏고 마을, 가야금 제작 체험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괘빈리에 위치한 가얏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가야금 제작 체험 프로그램이다.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경상북도 고령에서 대가야 우륵의 발자취를 느껴보아도 좋을 듯. 가얏고 마을은 성주 33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우륵 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ayatgo.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야금 명인



가야금 명인 **최충웅** | 지성자

가야금 악기장 **최태귀**

제작 **솔루원**

글 **김산호**

사진 **아이.엔 스튜디오**

영상 **올댓콘텐츠**